

# 懶翁和尚의 作品과 歌辭發生淵源 考察

金 基 卓

## <內 容>

- |             |                      |
|-------------|----------------------|
| I. 序 言      | Ⅲ. 布教手段의 念佛頌과 歌辭의 淵源 |
| Ⅱ. 懶翁和尚과 作品 | 1. 歌辭의 發生說과 念佛頌      |
| 1. 懶翁의 生涯   | 2. 歌舞僧에 의한 佛歌의 淵源    |
| 2. 歌辭 作品    | Ⅳ. 結 言               |

## I. 序 言

歌辭文學은 李朝 詩文學의 主脈을 이루는 것으로 時調와 雙壁을 이루면서 각각 그 形成과 內容이 比較的 뚜렷하게 區分되어 判別된다. 그런데 時調는 그 生成過程과 發生 淵源問題가 諸先學에 依하여 比較的 考究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歌辭의 發生淵源은 너무나 複雜하고 혼선을 가져와 上代詩歌에 얽히어 五里霧中에 쌓여 있다고 하겠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連關性이 깊다고 하는 羅代의 鄉歌라든가, 麗代의 景幾體歌에서 그 發生을 찾고 있으나 아직도 그 定論을 이루지 못한 채 있는 實情이다.

歌辭文學의 體系의인 研究와 考察을 爲하여 景幾體歌의 製作年代와 거의 비슷한 時期에 生存한 麗末의 巨僧 懶翁和尚의 歌辭作品을 終介하고<sup>1)</sup> 庶民들에게 布教手段으로 불리워진 佛讚念佛頌을 中心하여 歌辭發生의 淵源의 實相을 더듬어 보려고 하는 것이 本稿의 意圖하는 主要 主旨인 것이다. 그리고 佛敎歌辭를 通하여 詳論하고자 하는 理由는 佛敎文學의 側面에서 歌辭發生問題에 接近하여 보고자 하는데 있다.

1) 高麗時代에 發生된 別曲(景幾體歌)體의 최초 作品인 翰林別曲의 製作年代는 A. D 1214~1259년이었으나, 그 다음 作品인 安軸作 關東別曲은 1330년에, 竹溪別曲은 1330~1348년에 權近作 霜臺別曲은 1352~1348年 사이에 創作된 것으로 볼 때, 麗末 懶翁의 生存年代(忠肅王 七年 1320~ 辛禡王 二年 1376)와 比較해서 翰林別曲을 제외한 나머지 作品 創作年代와는 거의 同時代에 懶翁의 歌辭作品이 創作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比較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I. 懶翁和尚과 作品

### 1. 懶翁의 生涯

懶翁(1320~1376)은 慧勤의 號이니 舊名은 元慧요, 所居室은 江月軒으로서 慶北 寧海人이고 姓은 牙氏이다. 그는 麗末 忠肅王年(1320)에서 부터 禔王二年(1376) 사이에 生存한 사람으로 曹溪宗 闍掘山脈 高僧이다. 父는 瑞興, 母는 臚官署令에 이르렀고 母親은 鄭氏로서 靈山人이다. 예로부터 뛰어난 人物이 出生할 때는 으레 따라다니는 出生逸話가 있듯이 懶翁和尚 역시 그가 出生하기 前에 그의 母親 鄭氏의 꿈에 金色의 매가 날아와 口로 머리를 쪼면서 알을 품안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胎氣가 있어 元의 延祐 庚申(1320) 1月 15日에 懶翁和尚을 낳았다고 한다. 그 後 20歲되던 해에 이웃 친구의 죽음을 보고서 人生의 無常함을 깊이 느껴 佛門에 歸依할 것을 결심하고 忠惠王 復位 1年(1340)에 出家하게 되었다. 지금의 慶北 聞慶郡 四佛山(功德山) 大乘寺 妙寂庵의 了然禪師에게 가서 祝髮하고, 忠惠王 五年(1344) 25歲때 檜岩寺에 이르러 一室에 자리 잡고 四年동안 精修하여 開悟하였다.

忠穆王三年 丁亥(1347) 28歲 되던 해에는 스승을 찾아 北向한 後 元나라 燕京의 法源寺에 이르러 印度의 僧指空和尚을 찾아 二年間 배운 뒤 忠正王二年(1350) 三月에 元나라 호남지방을 遊歷하면서 平山處林禪師를 參見하고 得法을 하였다 한다. 그후 恭愍王 二年(1353)에 指空和尚으로부터 法衣一令 拂子一枝와 梵草信書 一紙를 받아 그 法을 이어받고 다시 雲水行脚에 올랐는데 恭愍王 七年 戊戌(1358) 三月 39歲 되던 해까지 開堂法會를 연 일도 있었고, 다시 燕蘇名山을 遊歷하면서 佛法을 닦은 바 있다.

恭愍王 十年(1361) 42歲때는 王命으로 上京하여 內殿에서 心要를 說法하였으며, 海州 神光寺에 거처하였다. 다시 恭愍王 16年(1367)에 王命에 의하여 淸平寺에 머물러가서는 神光寺와 金剛山의 正陽菴으로 巡歷하였다. 그후 乙酉(1369)년에는 病으로 因하여 五臺山 靈感庵에 머물렀고, 1370年 되던해 元鮮 司徒達睿가 指空의 靈骨과 舍利를 만들어 檜岩寺에 이르렀다. 3月에 師에 出山하여 禮骨하고 入城하여 廣明寺에서 結夏하고 가을에 檜岩寺에 자리를 옮기면서 크게 禪風을 날리게 되었다. 恭愍王 20年 辛亥(1371) 52歲때 王으로부터 書印과 金欄袈裟 內外法服 鉢盂를 하사 받고 王師가 되면서 大曹溪宗師, 禪教都摠攝, 勤修本智, 重興祖風, 福國祐世, 普濟尊者的 法號를 받았다. 그리고 松廣寺를 東方第一道場이라하여 머물게 하였다.

辛酉 二年(1376) 57歲에 楡岩寺를 修營하고 四月 十五日 大落法會를 치니 京外에서 士女와 庶民大衆들이 구름같이 모여 輻輳하니 그 數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大盛況을 이루었다고 傳한다. 이것을 보고 襄陵에서 「楡岩密邇京邑 士女往還, 晝夜絡繹, 或至廢業, 然之便」이라 上奏하므로 이에 聖旨로써 密陽 登源寺로 移住하게 되었다. 그러나 楡岩寺를 떠날 때는 病中이어서 驪興의 神勒寺에서 享年 57歲로 涅槃하였는데 神異한 일들이<sup>2)</sup> 그후 일어났다고 하였다. 王은 그에게 禮覺이란 諡號를 내렸는데 그는 普雨大師와 함께 麗末 禪宗의 雙傑으로 朝鮮佛敎에 至大한 影響을 끼친 분이다.

以上과 같이 懶翁의 生涯를 볼 때 일찍이 元나라에 들어가 指空·平山의 兩和尚으로부터 禪法을 傳受받고 我國에 돌아와서 麗末 禪宗의 巨匠으로 宗風을 크게 드날렸다. 老年에는 名聲이 京鄕各地에 널리 퍼져 위로는 帝王 아래로는 庶民에 이르기까지 그 感化力은 실로 至大하여 그의 說法을 들려오 士女들이 連日 몰린듯 하였다 한다.<sup>3)</sup>

恭愍王 20年에 王前가 되어 朝野의 尊崇을 받는 巨擘으로서 우리나라 佛敎界에 影響을 준 楡侶로서 現存 韓國佛敎의 各 寺刹에서 큰 佛事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懶翁을 證明法師으로서 位目을 써서 모시고 禮式을 거행하는 일<sup>4)</sup>과, 後世 그를 尊崇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 그의 位置를 立證되어 지고 있다. 現在에도 楊州郡 楡巖寺에 가면 同寺駐 뒷뜰 山頂허리에 指空, 懶翁, 無學, 三大和尚의 塔이 호화하련서도 雄達하게 一列로 내려서 있어 뒷날의 출신을 보려고 踴躍한 기 있다. 此外은 고려 李穡의 「天寶日 楡岩寺 禪師碑」와 그 門人 覺玄의 「王前 麗 僧 懶翁 和尚 行狀」 등에 따라져 懶翁의 瑣德을 알 수 있다.

## 2. 歌辭作品

懶翁의 文集인 懶翁集에는 高麗 末代에 撰한 碑銘<sup>5)</sup>과 門人 覺宏이 적은

- 2) 「『當宗室時 郡人皇見五彩雲, 蓋山頂, 又經祈禱馬, 預前三日不頓草 垂首悲泣, 寺僧迷如 夢見神龍 搖尾焚臺 遷入于江 共狀如馬, 門人詣靈骨舍利 將亦遷楡岩 思 日久水淺 忽無雨而水漲 與久滯衆般 一時順流而下 則神龍之助可知也. 二十九日 到楡岩 安于禪堂 八月十五日 樹淨園於寺之北崖, 往往有神光照耀, 既火之洗骨 無 雲而雨者 方數百步……神光照耀三日乃已』(懶翁集: 塔銘과 行狀參照)
- 3) 『懶翁住楡岩寺 士女奔波 有儒生三人相謂曰 彼兒有何幻術, 而使人驚駭如此, 吾 輩往見匿之, 遂到方丈, 翁踞榻而坐, 容貌雄偉, 眼波明瑩 望之儼然, 忽大聲唱云 三人同行 必有一智 智不到處, 道路一旬來, 三人覓道頂禮而返(還慵齋叢話 卷文)
- 4) 徐京保著: 東洋佛敎文化史 p. 230.
- 5) 『註師所居室曰 江月軒 平生未嘗習世俗文字 有請題詠 操筆立書, 若不經意 理趣 深遠 晚好墨 戲山水 逼道權 嗚呼 道旣通 多能也宜』(哉懶翁集引用)

行狀<sup>6)</sup>과 함께 歌頌이 있는데, 그 歌頌에는 甌珠歌 60句, 百衲歌 40句, 枯體歌 52句의 歌三首와 함께 語錄 및 七言絕句의 形式을 갖춘 詩歌가 총 291首가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文集에는 侍者 覺蓮의 記錄으로서 廣濟禪寺의 開堂說法을 비롯하여 結制上堂 解制日上堂 等 七偈의 上堂語錄과 入內普說 등 九偈의 普說이 있고 또 際夜小參 등 八種의 小參이 있다. 이 밖에도 廻向, 晚參, 垂語, 代語, 着語 등의 日用常事に 對한 問答이 있으며, 麗末의 碩儒인 牧隱 李穡이 評한 「懶翁三歌後」<sup>7)</sup>에 記載한 대로 後代에 至大한 影響을 끼쳤던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佛光山 大源庵比丘 法藏이 補足한 「普濟尊者三種歌」에서도 實證되는 것이니 懶翁의 歌頌을 계승하여 長篇으로 發展시킨 것이다. 佛敎文學의 性格을 띠고 있는 西往歌를 비롯하여 尋牛歌, 樂道歌, 回心曲, 歸山曲, 太平曲 및 최근에 發見된 僧元歌를 懶翁의 作品이라 하나, 本稿에서는 이 중에서 佛道를 닦아 西方淨土에 往生 하겠다는 佛敎의 教化를 目的로 하는 西往歌와 僧元歌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 (1) 西往歌

歌辭文學의 最古 作品이라고 할 수 있는 <西往歌>는 木板本 「普勸念佛文」등에 附錄된 <나옹화상서왕가>와 權相老曠자가 採集하여 朝鮮歌謠集成에 收錄한 <西往歌>의 두 種類가 있으니 便宜上 前者를 <西往歌> (一)이라 하고 後者를 <西往歌> (二)라 부르고 있다.<sup>8)</sup> 이 歌辭는 現在까지 많은 異本이 있는데 몇가지 版本을 본다면 近者 海印寺 僧有機가 刊行한 新編普勸文의 附錄에 실린 江月西往歌와 1741년에 修道寺刊 彌陀懺節要를 1776년에는 海印寺刊 念佛 普勸文을 1787년에 禪雲寺刊 普勸文에 수록된 <나옹화상서왕가>라고 傳하는 것이 그 代表의인 것으로 들 수 있다.<sup>9)</sup> 또 1765년 龍門山에서 開刊한 普勸文에 龍門山에서 開刊한 普勸文의 <나옹화상서왕가>라는 板本도 있다.<sup>10)</sup> 이와같은 各版本의 「西往歌」내용들이 大同小異하며 다만 單語가 相異한 몇군데의 文字의 詭脫, 表記法의 差異가 있으며, 그리고 表記法이 俗化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師 壽五十七 臘三十七 諡曰禪覺 師常自言曰 山僧 不解文字 然 其歌頌法語 若不經意 皆極其妙 今分爲二秩 刊行于世 先師德行 固已偉然 實非弱辭 所能稱述 粗記始末 以傳不朽』(懶翁集 引用)

7) 『珠 隨咲色 人之所迷也 而其清淨則表佛性 枯體 氣散肉敗 人之所遺也 而其生存則行 佛道 百衲 袈錦綺綴破爛 掩肌膚禦寒暑耳 然非無以莊嚴威儀 安處徒衆 入佛道見佛性矣 三歌 首尾相應 脈絡相通 所以示 後人也深且切矣 懶翁文字信乎 未嘗立草 吐出實理 粲然寫出 韻語琅然 於世俗文字 不甚解 亦可見焉』(懶翁集 引用)

8) 李相實著·韓國古詩歌의 研究(大邱:螢雪出版社 1975) pp. 334~335.

9) 崔康賢: 西往歌研究(高麗大:人文論集Vol17, 1972) pp. 93~114.

10) 具壽榮: 懶翁和尚과 西往歌研究(국학연구원 Vol62~63, 1973) p. 39.

西往歌 <I>은 총 96句로서 學界에 알려진 代表的인 作品이요, <II>는 총 147句로서 <I>보다 添削이 심하고 內容이 달라 오히려 다른 佛敎歌辭와의 部分的 融合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歌辭作品의 內容은 단순히 「勸念佛」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佛敎의 布敎와 教化를 主된 目的으로 지어졌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一般庶民大衆에게 부처(佛)의 功德을 기리도록 弘布活動을 하면서 불렀던 歌辭로서 卍素 念佛功德으로 極樂往生을 강조하고 敘事的인 內容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作品에 內在된 思想은 淨土往生을 강조하는데<sup>11)</sup> 그 主旨은 世界萬事가 夢幻이니 世上樂에만 貪着하지 말고 善知識을 親見하여 一念誠力으로 念佛하여 一切衆生을 極樂으로 往生케하여 無上樂을 누리도록 念佛往生을 권장한 作品이다. 內容의 構成은 全四段으로서 結構되어 있는데, 3.4調, 4.4調가 基本律格으로 되어 있어 長形詩歌로서 호흡에 알맞는 형식으로 自然스럽게 다듬어져 있다.

따라서 本歌는 民衆의 敎화와 布敎를 目的으로 平易한 形式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서 생겼을 것이며, 敎訓的인 口碑文學으로 傳하여져 왔다고 본다.

## (2) 僧元歌

僧元歌는 최근(1971年)에 釜山大 金鍾雨 박사가 釜山 東來에 居住하는 趙赫濟氏 所藏의 筆寫本을 世上에 紹介한 희귀한 資料이다.<sup>12)</sup>

이 歌辭는 懶翁和尚의 作品 중에서도 가장 信憑할 수 있는 原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歌辭의 表記가 吏讀字로 되어 있는 것이 주목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기에 吏讀字 表記로 된 作品은 이외에 또 申得淸의 <歷代轉理歌>로 漢文字가 많이 섞여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內容은 中國 歷代의 無道한 帝王의 史蹟으로서 恭愍王에게 바친, 宗教的 素材가 아닌 歌辭로 後代에 와서 국문만을 붙여 改作되었다고 한다.

僧元歌도 佛敎의 敎理로서 人生의 無常을 말하고 來世를 약속하며 佛道를 信奉하자는 布敎的 內容을 가지고 있음을 볼때 西往歌와 거의 같은 類의 歌辭로 볼 수 있다. 이 歌辭도 佛敎의 宣傳을 目的으로한 敎述的인 것이고<sup>13)</sup> 布敎의 對象은 上流知識層보다 一般庶民를 主對象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佛敎의 眞은 敎理보다는 因果說에 근거하여 論議한 世事貪着에 對한 警戒, 極樂淨土에의 憧憬心 喚起 四苦八苦나 地獄慘狀을 생생히 그리 그런 科

11) 金起東著: 國文學上的 佛敎思想(서울: 進明文化社, 1973) pp. 111~114.

12) 金鍾雨: 懶翁和尚 僧元歌(부산大, 국어국문학 Vo. 110, 1971) p. 109.

13) 金鍾雨著: 「鄉歌文學 研究」 麗末 懶翁和尚과 그의 歌辭(서울: 宣明文化社, 1974) p. 38.

로움에서 解脫하는 길은 오직 念佛修道뿐임을 강조하고 있다.

僧元歌는 405句의 장편가사로서 形式上으로 西往歌와 別로 다른 것이 없이 3.4調 4.4調로 되어 있으며, 懶翁의 原作으로서 처음부터 吏讀表記가 되었을 것으로<sup>14)</sup> 보고 있으나, 僧侶들의 念佛頌처럼 口碑로 傳承하여 명백을 이어오다가 吏讀表記로 정착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以上으로 懶翁和尚이 創作하였다는 西往歌와 僧元歌에 對한 概略的인 內容과 形式, 價値 등을 살펴 보았다. 이 두 歌辭作品은 모두 佛敎的인 內容의 作品으로서 一般民衆의 敎化와 布敎의 手段으로 創作된 것이 共通된 점이라 하겠다. 이 두 歌辭중 어느 것이 최초의 作品이라 하기보다 이들 作品이 가지고 있는 主題와 內容의 작일이 더욱 문제시 될 수 있는데 여기에 對하여서 別다른 意義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懶翁의 作品을 지금까지의 최초의 作品이라 일컫는 賞春曲과 비교한다면, 먼저 宗敎的인 色彩를 띠고 있으며, 道學者的인 自然을 음미하고 감상하는 詩歌가 아니라 僧侶가 지은 佛讚歌辭라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두 詩歌는 분명히 歌辭의 性質을 지닌 3.4 혹은 4.4調의 연속체 長形歌辭이다. 그러나 吏讀體로 기록되었기에 表現手段의 차이를 볼 수 있다. 吏讀文字의 기록에 앞서서 이들 作品은 上代에서 부터 民衆의 敎化와 布敎를 目的으로 平易한 形式의 念佛頌으로 지어 부르면서 생긴 敎訓的인 口碑文學의 原形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西往歌 보다는 僧元歌가 吏讀字로 기록되었기에 歌辭의 嚆矢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口碑傳承에서 文字로 定着되었다 함은 곧 이들 歌謠가 僧侶들이나 一般民衆가운데 「보살」 들에 依하여 念佛頌의 그 念으로 傳하여 오다가 文字로 表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Ⅲ. 布敎手段의 念佛頌과 歌辭의 淵源

#### 1. 歌辭의 發生說과 念佛頌

歌辭의 發生에 對하여 지금까지의 通說은 丁克仁의 「賞春曲」을 嚆矢로 삼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麗末의 懶翁和尚作 <西往歌>로 보고 있으며 더우기 최근에는 吏讀로 表記된 僧元歌가 發見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최초의 作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sup>15)</sup> 그리고 歌辭의 發生도 賞春曲이 나오기 以前으로

14) 위의 책 p. 338.

15) 위의 책 pp. 332~338.

推測하여 發生的 系譜를 摸索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先學의 諸見解를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이 論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歌辭의 原型으로 말하면 處容歌. 鳳凰吟에 있는 듯하다 하고<sup>16)</sup>, 歌辭의 發生은 景幾體歌의 쇠퇴와 때를 같이해서 歌辭가 存在하였고 形態로는 連章體가 連續體로 變하였다는 것<sup>17)</sup>, 歌辭의 始初는 景幾體歌에서 發達하였다고 주장하는 점<sup>18)</sup>.

둘째 歌辭는 時調의 第三行的 리듬에서 發生하였다는 점<sup>19)</sup>과 時調의 破格形에서 나왔다는 점.<sup>20)</sup>

셋째, 麗末의 西往歌 發生說과<sup>21)</sup> 李朝初期作品 龍飛御天歌에서 實質의 起源流를 찾고자 하는 점.<sup>22)</sup>

마지막으로 歌辭는 麗末의 西往歌보다는 최근에 發見된 僧元歌에서 發生되었다는 점<sup>23)</sup>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各樣의 見解는 本 研究의 必然性을 더해 준다. 먼저 結論의 으로 말하자면 위의 先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筆者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하는데, 現今까지 傳하는 佛教歌辭의 發生은 上代부터 僧侶들의 佛教布教를 위하여 口念된 念佛頌에서 그 淵源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본다.

<念佛>이라는 부름은 곧 長形의 佛讚歌頌으로서 後代歌辭에 根源이 될 수 있으며, 佛教收入과 함께 들어온 梵唄와 漢讚, 總讚의 영향을 입어 형성된 辭說(長形)의 詩歌라 할 수 있겠으며 점차 3.4내지 4.4調의 主된 正格歌辭로 發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上俗의 佛教歌辭와 古典音樂에 있어서의 正樂은 梵唄의 影響을 입은 바 크다. 이리하여 梵唄는 佛教收入以後에 들어와 儀式音樂과 佛教音樂 그리고 民間의 聲樂으로 分類가 되어 發展되었다.<sup>24)</sup>

16) 趙潤濟著：韓國詩歌의 研究(서울：乙酉文化社) pp.123~124.

17) 趙潤濟著：國文學概說(서울：동국문화사 1965) pp.143~144.

18) 高晶玉著：國語國文學要講 pp.400~401. 三人共著 國文學概論 pp.22~23.

우키어문화회著 國文學史 pp.85~86.

19) 李能雨：國文學概論 pp.125~126.

20) 金思燦：李朝時代의 歌謠研究 pp.302~303.

21) 李舜政：國文學全史 p.108. 張德順 國文學通論 p.186.

22) 金寅旭：國文學概說 p.54.

23) 金鍾雨：鄉歌文學研究 p.332. 윤성근：한국문학 개설(대구：문교출판사 1975) p.188.

24) 具本燾：韓國古典音樂으로 본 梵唄의 位置(明知大：論文集(Vol4, 1971) p.78.

梵唄가 이 땅에 들어 온것과 같이 하여 佛敎가 傳來한 것은 알려진 바와 같이 高句麗는 小獸林王二年(372) 六月 秦王 苻堅이 보낸 僧 順道와 佛像과 經文을 받아들임으로서 비롯했고, 百濟는 枕流王 元年(364) 九月 東晉으로부터 胡僧 摩羅難陀가 來朝함으로써 興敎의 계기가 되었다. 이 중 新羅는 法興王十四年(527)에 비로소 公認되었으나, 傳法의 史實은 이미 그 以前에 있었던 것으로 認定되고 있다. 즉 訥祇王(417~458)때에 高句麗 僧墨胡子가 一善郡에 들어와서 布敎한 事實이 있었고, 炤知王(479~500) 때에 高句麗 僧我道가 와서 傳道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위에 紹介한 佛敎의 公認된 記錄은 表面的 事實과 關係없이 그 以前에는 一般民衆사이에 實質的인 流布가 되고 모든 手段을 通하여 布敎活動이 行하여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오하고 난해한 敎理는 口碑說話로 또는 念佛頌으로 傳播되어 韓國佛敎의 土着化 과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때부터 韓國佛敎가 形成되기 시작하여 一般大衆에게는 傳說口碑로서 佛敎思想이 은연중에 심어졌을 것이고 또는 一般說話와 民間傳來 歌謠에다 佛敎思想을 加味하여 趣意에 어울리도록 결부시켜 民間의 至純한 信仰心을 人間의 감동에 依하여 歸依의 念으로 승화시켰을 것이다.

一般民衆을 敎化시키자면 文學的인 說話나 一般民間의 傳來 民謠가 佛敎敎理에 곧잘 援用되고 이같은 內容은 다시 口碑傳承되어 後代에 내려올수록 民衆下部集團<sup>25)</sup>의 이해를 爲한 念佛 및 說敎로 布敎를 爲한 文學的인 수식이 加해서 敍事形態가 敍事文學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上代의 僧侶는 大部分 僧과 仙의 二重身分으로써<sup>26)</sup> 一般庶民과 같은 生活하는 僧은 公在家僧일 것이며 오늘날의 <庸僧> 혹은 <보살> 들을 의미할 것이다. 이 在家僧은 念佛僧으로서 주로 戒단 받고 佛戒를 지키고 念佛하는 個人 修行者이다. 이들이 바로 부처의 功德을 빌기 위해서 또 民衆을 爲한 布敎를 目的으로 念佛을 行하는 것이 主된 敎化의 方편이 되었을 것이다.

念佛에는 念思와 口念<sup>27)</sup>으로 나누고 있는데 <心想佛>의 念思보다 稱名念佛의 口念이 民衆敎化를 爲한 손쉬운 方편이고 또 布敎의 手段으로 널리

25) 여기서 民衆의 下部集團이라 함은 佛敎의 大衆의 敎化 乃至 念佛修行을 爲한 상대적인 庶民集團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上代의 政治的集團 즉 향토집단이 宗教集團으로 변모되어 民衆에 波及되었을 것이다.

26) 僧과 仙의 二重身分의 代表的인 例는 羅代의 鄉歌作家중 僧侶들을 들 수 있다. 『月明師：臣僧但屬於國仙之徒』(三國遺事 卷27, 月明師 兜率歌條)

27) 『念心成熟 自然感應 見佛全身 此法最上謂心想佛時 卽是佛 又過於口念也』(十六羅經 修持法門略)



使用되었다.<sup>28)</sup> 念佛은 布敎의 手段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初期에는 念佛功德을 강조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新羅時代의 경우 五比丘가 念佛功德으로 往生하였고<sup>29)</sup> 보잘것 없는 婢女의 몸으로 念佛을 지성껏 行한 보람으로 西方淨土往生을 하였고<sup>30)</sup> 심지어 念佛行으로 善業을 닦는 念佛師<sup>31)</sup>가 存在하였다. 이런 例는 모두 西天에 往生한 이야기로서 娑婆에서 念佛하는 사람에게 그의 正성에 依하여 西方淨土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說話들이다.

念佛을 하거나, 佛經을 소리내어 읽거나, 외거나, 풀이하여 낭송하는 일은 듣는 사람에게 歸依心을 일으키게 하는 布敎의 한 方便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佛敎의 布敎와 修道의 한 方便으로 옛부터 諸儀式과 佛讚歌謠가 存在하였음을 文獻상으로 엿볼 수 있다. 佛敎가 들어온 時期로 보아서 三國중 新羅가 훨씬 뒤졌지만(573年) 他國보다 더 旺盛하게 일었다는 것을 文獻의 기록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諸佛事와 各種 法會儀式들이 國家의 行事에서 個人的인 齋會까지 열렸는데 이러한 儀式에는 반드시 佛敎類이 따랐을 것이 짐작간다. 그러한 例로는 八關會를 비롯하여 『三國遺事』에 散見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32)</sup>

이러한 佛敎의 儀禮에는 供養會, 落慶會, 祈禱會, 香徒會, 說經會, 敵國 調伏의 祈願, 祈雨, 祈晴, 救食과 燃燈會等도 속하여 行해 졌을 것이며, 散花, 錫杖, 梵唄, 供養, 轉經등 엄격하고도 엄숙한 規範과 節次에 依하여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이러한 行事의 參加者는 王과 朝臣들 그리고 善男善女들일 것이고 主宰者는 僧侶들일 것이다.

이러한 佛敎의 儀禮나 儀式을 通하여 讚佛乃至 祈願을 할때는 直接 혹은 間接으로 念佛頌의 形式을 빌린 詩歌가 불리워졌을 것이다. 佛敎의 行事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僧侶들이 佛供을 드리는 各種 齋會와 僧侶가운데서도 專門僧이 行하는 講會, 法會等으로 나누는데 이들 宗教的 儀式은 布敎活動으로서 佛敎의 大衆의 教化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때의 僧侶들은 한나

28) 黃滄江著：新羅佛敎說話研究(서울：一志社，1975) p. 134.

29) 三國遺事卷五 布川山五比丘景德王條

30) 같은책 郁面婢念佛西昇條

31) 같은책 念佛師條

32) " 卷三 皇龍寺九層塔條의 八關會와 慶讚會  
 " 卷五 眞身受供條의 落慶會  
 " 仙桃聖母隨喜佛寺條의 占察法會.  
 " 金現感虎條의 福會  
 " 包山八聖條의 萬日彌陀道場  
 " 卷四 圓光西學條의 百座道場  
 " 賢瑜珈條의 講華嚴經會  
 " 心地繼祖條의 禮懺 等

로 佛敎布敎者이며 文藝傳承者로서 역할을 겸하고 있다 하겠다. 特히 佛敎는 新羅를 지나 高麗에 와서는 더욱 布敎活動이 盛하여 百姓들에게 精神의 主軸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佛歌가 盛하게 되었고 僧侶들은 文藝傳承者로서의 主導의 役割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洪萬宗의 「小華詩評」에서 『麗朝詩僧多矣』라하여 圓鑑, 宏演, 眞靜, 禪坦과 懶翁을 들어 소개하고, 이외에도 坦然, 達全, 天因, 戒膺, 益莊, 祖異, 始寧, 祖英, 月窓, 大覺, 惠文等 高名한 詩僧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sup>33)</sup> 이더한 佛僧들의 作詩는 李朝時代에 와서도 僧侶들이 士大夫들과 어울려 詩를 지어 酬唱을 하고 成宗以前 까지 만해도 僧侶들이 民衆과 함께 기거를 같이 하면서 敎化를 하고, 李朝士林들 까지 함께 글을 읽고 詩作을 한 것을 볼때<sup>34)</sup> 그 脈絡은 李朝後期까지 이어진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같이 各種 佛敎의 儀式에서 行한 念佛頌에서 佛歌의 淵源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는 佛敎의 수입과 함께 들어온 梵唄나 讚頌의 영향도 크다 하겠다.<sup>35)</sup>

梵唄는 儀式供養 音樂가운데서 唯一한 것으로 衆生의 애끓는 煩惱를 식혀 주는 찬된 노래이며 慈悲와 平和와 敬虔을 無限한 生命의 찬다운 힘을 북돋아 주는 佛敎의 讚歌이기도 하다. 梵唄는 元來 梵土의 正樂으로 只今의 印度敎인 베다(veda), 聲明에서 根源을 찾을 수 있는데 韓國古典 音樂의 歌, 舞, 樂, 全般에 佛敎音樂이 영향을 끼쳤으니 梵唄는 佛歌의 主要한 位置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梵唄는 敬虔한 佛法에 對해서 信仰心을 가져 法悅의 境地를 느끼게 하며 妙音(梵音)을 運해서 梵天을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佛敎의 眞意인 奧妙한 人間性을 들으며 感動하게 하며 法에 맞는 佛敎歌謠를 만들게 된다.

梵唄의 曲은 梵音을 노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부처의 功德을 찬탄하기 爲하여 經文의 偈頌을 읊어서 노래하는 것으로 音樂이 屈曲이 있고 하여

33) 李乘坡著：國文學全史(서울：진구문화사 1971) pp. 492~493.

34) 『士大夫爲其親屬皆設齋 又設法筵於齋堂, 行忌祭者 必邀僧飯之, 亦有詩僧, 與經神相唱酬者 頗多, 儒生讀書者皆上寺 雖或有瓊瓦譁擾之 弊 而儒釋相親者亦不少, 至此廟朝極矣 僧徒雜於村落 雖有淫暴 人不得詰 朝官守令亦不得抗 至有頗僧蔭而獲利者 大學生獻佛骨要恩寵 士林不甚驚怪, 自成宗嚴立度僧之禁 不許給帖 由是城中僧徒尠少, 內外寺刹皆空 士族無設齋飯僧者, 是由人主之所尚而俗習亦與之變也.』(慵齋叢話 卷八)

35) 우리나라에 들어온 梵唄는 主로 儀式供養에서 사용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佛敎音樂이면서도 후기에 오면 巫, 佛, 道, 儒가 混雜되어 있는 우리의 正樂인 雅·俗樂의 分類에서 한 분야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具本燮 한국 古典音樂으로 본 梵唄의 位置 pp. 87~126. 참고)

曲調에 맞추어서 音聲供養(法會, 法事供養)을 하는데 이 曲調가 곧 後代에 가서 門僧, 歌舞僧들이 부른 念佛頌으로 發展됨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에 對하여 비슷한 意見을 밝힌 金鍾雨박사는 「鄉歌文學論」에서

『저 梵唄나 漢讚은 識者도 그 理致를 깨닫기 어려운 것이라 一般大衆에게는 더욱 알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 讚文을 鄉言으로 불러 一般에게 易解케 하기 爲하여 鄉讚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sup>36)</sup>

라고 하여 初期의 佛歌는 鄉言으로 된 鄉讚으로 지어져 一般大衆에게 傳派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역시 筆者도 생각할 때 鄉讚으로 이루어진 新羅의 詩歌가 이미 發生되었고, 麗初에 가서 均如大師가 지은 普賢十願歌까지 연결되어질 때 麗末에 나온 韻翁의 「僧元歌」와 같은 吏讀로 表記된 歌辭가 創作되어 등장함은 무리가 아닌 당연한 결과라 믿는다.

## 2. 歌舞僧에 의한 佛歌의 淵源

지금까지는 先學들의 歌辭發生說을 紹介하고 佛頌歌辭의 淵源을 梵唄에 영향받은 念佛頌에서 찾으려고 시도해 보았다. 여기서는 門僧, 歌舞僧들이 街巷에서 부른 念佛頌에 對하여 具體적인 實際文獻上에 나타난 作品을 例를 들어서 所見의 일단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한가지의 作品을 살핀다면, 鄉歌가 發生된 때를 같이해서 나온 新羅時의 元曉大師가 지은 「無碍歌」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原歌는 찾을 길이 없이 文獻에만 나타나는 <無碍歌>는 一般庶民에게 弘布하는 詩歌로서 「元曉」가 俗服을 간아 입고 小姓居고라 이름지어 千村萬落으로 다니면서 「且歌且舞」하였다는 것이다.<sup>37)</sup> 小姓居고라는 元曉도 文獻의 기록을 볼때 歌舞僧으로 布教活動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南無阿彌陀佛」이나 「觀世音菩薩」이라는 稱名을 불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고 그 內容은 念佛頌로서 鄉讚을 通한 詩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한다. 念佛頌과 無碍歌에 對해서 金東旭 教授도

『이 念佛僧이 南無阿彌陀佛의 號만 외운 것인지 與否는 現在로는 알 수 없으나 中國, 隋, 唐의 例를 본다면 佛號만 외웠을지도 모른다. 遺事에 나오는 바 元曉의 無碍歌로 말미암아 『皆識佛陀之號・咸作南無之稱』(三國

36) 金鍾雨著：鄉歌文學研究(서울：宣明文化社 1974) pp. 333.

37) 『曉旣失戒生慙 己後易俗服 自號小姓居士 偶得優人 舞弄大瓶, 其狀瑰奇 因其形製爲道具 以華嚴經一切無導人一道出生死 命名号 無仍作歌流于世. 嘗持此, 千村萬落, 且歌且舞, 化詠而歸 使桑樞瓮牖 獲猴之輩, 皆識佛陀之號, 咸作南無之稱 風之化大矣哉.』(三國遺事卷四元曉不羈條)

遺事 卷四 元奘 不羈)는 佛號도 의운 것이나 高麗史 樂志 無碍條 後記 李朝末 「樂歌」에 보는 바와 같은 無碍 改作詞로 본다면 相當히 긴 辭說이 들어간 노래였음을 알 수 있다.』<sup>38)</sup>

고 하였다. 이같이 念佛을 通하여 一般庶民의 生活相을 觀照하고 街巷에 나가 歌舞를 民衆앞에서 行하였음에 볼때 元奘가 지은 無碍歌는 위의 引用文에서 본 바와 같이 長形의 연속체 詩歌가 아닐런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新羅때부터 僧侶들이 布教活動으로 부른 念佛頌이 庶民性을 띠고 家家戶戶 찾아 다니면서 供養을 하기 爲해 街頭에 進出한 경향의 例는 여러곳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sup>39)</sup> 특히 新羅時代의 歌舞僧으로 이름 난 僧으로는 「元曉」뿐만 아니라 「惠宿」과 「惠空」을 들 수 있다. 이들은

『蓬出家爲僧 烏名惠空 常住一小寺後 猶狂大醉 負笈歌舞於街巷 號負笈和尚……』<sup>40)</sup>

이라 하였으며 또 이와 비슷한 例로서는 高麗時代에 와서도

『有僧容軀矮小 一足微蹇 每居長安 日日周遍城中 朱門貴宅 無不歷到 常拍手作鷄鼓贊狀 噉口作聲 或雜鷄長啼 或兩鷄相鬪 或雌鷄遺卵 千聲萬態 無不吻合 或有村鷄應鳴者 又作歌搖 身而唱口……<略>……其歌多類此 曲節似農歌 兒曹隨行千百爲羣……<略>……一日所得多 至澹石 以是衣食之 時人號曰 鷄僧。』<sup>41)</sup>

과 같은 例를 볼 수 있으니 이 두 引用文에서 본바와 같이 新羅나 高麗에 와서도 僧侶들이 街巷에서 歌舞를 行하면서 銅伶僧으로 簞를지고 齋米를 걸으며 다니면서 庶民에게 가까이 하고 一般大衆에게 佛敎를 弘布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점에 對하여 金東旭教授도 「惠宿」「惠空」「元奘」에 對하여 이들 모두 墮落僧의 行世를 하면서 庶民에게 가까이 하고 庶民佛敎를 널리 弘布하기 爲하여 부른 「元曉」의 <無碍歌>는 念佛이요 歌詞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42)</sup> 이로써 본 때 上代에서부터 佛敎弘布를 爲해서 부른 念佛頌에는 僧侶 자신이 直接 歌詞를 創作하면서 庶民大衆을 상대한 庶民佛敎로서 彌陀信仰 및 淨土往生을 傳派 시켰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또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戲具를 가지고 千村萬落을 돌아다니며 無碍歌와 같은 類의 內容을 가진 念佛頌이 流行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元曉」가 돌아 다니면서 부른 「無碍歌」가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진 歌辭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38) 金東旭: 新羅行者念佛 및 說話(서울: 震檀學報 Vol 23, 1962) p. 43. 인용

39) 三國遺事 卷五 孝善第九 念佛衍條  
" 卷六 " 大波孝二世父母條

40) 三國遺事 卷四 義解二惠同隱條

41) 慵齋叢話 卷六引用

42) 金東旭 위의책 p. 44.

歌舞僧의 身分으로 불렀음을 볼 때 長歌일 것으로 짐작되고, 이 歌辭가 念佛이라 할 수 있다면 麗末의 「懶翁」이 지었다는 <僧元歌>나 <西往歌> 역시 念佛의 性格을 띤 歌辭라고 규정하여도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에서言及한 「元曉」의 <無碍歌>나 「惠宿」「惠空」이 『歌舞於街巷』하였다는 <歌> 역시 長歌일 可能性이 있을 것이고 보면, 여기서 後代에 나온 <回心曲>이며 <山念佛> 같은 類의 民謠도 이런 歌舞僧 혹은 門僧들의 念佛가타에서 歌辭가 發生될 可能性이 길다고 할 수 있겠다. 念佛頌은 上流庶民과 親近한 哀調를 띤 것으로 上流貴族層보다 下流庶民層 社會에서 불리워졌을 것이고 점차 俗謠的인 性格의 歌辭念佛이 文學的인 歌辭念佛으로 發展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上代의 念佛歌頌은 庶民들 生活에 보다 密着된 詩歌라 할 수 있다. 國家에서 貴族 혹은 上流社會를 中心하여 올리는 各種 法會에서는 梵唄・梵聲에 依한 啓請을 올리거나, 혹은 漢讀으로 使用되었을 때 一般庶民大衆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소리로만 들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歌舞僧들은 念佛歌頌에 庶民大衆이 관심을 갖게 하고 佛讚歌頌을 通하여 庶民에게 布敎하고 敎化・敎導하는 敎化僧의 米치는 힘인 上代에서 부터 一般詩歌에까지 接近을 시도하면서 강인한 傳承의 힘인 民衆들에 依해서 口碑로 襲用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傳承의 힘인 李朝 儒敎社會에 와서는 佛敎의 위축으로 因하여 佛讚歌辭는 退色하게 되었고 時代의 흐름에 따라 退嬰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上代의 門僧, 敎化僧, 歌舞僧들에 의하여 불리워진 念佛歌頌은 淨土思想을 根幹으로 하고 있으며, 佛敎의 信仰生活에 수반되는 形式的인 要素인 만큼 庶民을 敎化하는 意味에서 重要的 意義를 갖는 것으로 民衆들이 부를 수 있는 歌詠으로 雜讚으로 表記되었거나 혹은 口傳하면서 불리웠다고 볼 수 있다.

懶翁和尚의 作品을 中心하여 살펴 본바와 같이 佛敎歌謠는 一般歌謠에 앞서 發生한 것으로 初期에는 단순한 庶民敎化 및 布敎를 目的을 가지고 念佛頌의 形式을 빌어 불리워지면서 점차 <淨土往生>의 思想을 加味하여 民衆에게 권하는 念佛歌頌이 自然 큰 비중을 차지하게 마련이다. 어떤 意味로는 모든 佛敎歌辭는 一次的으로 功德과 往生을 고취하는 上代의 念佛頌이라고 한마디로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新羅時代의 元曉作品 <無碍歌>는 麗代의 景幾體歌나 俗謠에 앞선 하나의 類型의인 佛讚歌로서 李朝時代의 士大夫들이 지은 道學者의인 立場에서 지어진 歌辭에 까지 관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念佛의 모티브를 두고 보더라도 그것은 모두 佛教의인 것이지만 단순히 高聲念佛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形式上으로 볼때 念佛頌도 梵唄, 漢讚, 鄉讚의 諸 영향을 받아 발전되어 왔고 다시 후기에 와서는 長形의 辭說的인 內容의 3.4 혹은 4.4調의 詩歌와 同質의인 性格을 가진 正格歌辭로 변천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新羅時代의 定形詩歌인 鄉歌는 주로 貴族 및 高僧(學僧)들이 즐겨 부르고 또 創作되었다면, 不定形이라 할 수 있는 「元曉」의 <無碍歌>와 같은 長形의 念佛頌은 門僧, 銅令僧, 歌舞僧들에 依해서 創作되고 一般庶民社會에서 限定되어 불리워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源流는 根本的으로 佛教經文에 의한 念佛頌이나 偈頌에서 派生 發達된 것으로 생각한다.

## V. 結 言

지금까지 懶翁和尚의 生涯와 作品을 中心하여 佛教歌辭의 淵源을 살펴 보았다.

上代佛教는 이 땅에 수입과 동시에 弘布와 布教하기 爲하여 庶民大衆에게 教化하고 淨土往生思想을 강조하여 宗教的 目的을 達成하고자 教化僧들이 行한 念佛頌은 결코 文學的인 辭說詩歌가 될 수 없다고는 생각 않는다. 오히려 形式上으로 文學的일 수 있게 하고 思想 乃至 內容上으로 深奧해질 수 있는 온갖 조건을 提示해 준다는 점에서, 上代의 念佛은 歌辭로 능히 發展할 수 있는 生産的인 諸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믿는 바이다. 이로서 佛教와 詩歌는 懶翁作品만을 例를 들어 볼때 서로 密接한 連關과 關係를 지니고 있으며 <西往歌>보다는 최근에 發見된 <僧元歌>가 오히려 長形의 辭說的 念佛頌에 近接하므로 歌辭의 최초作品으로 보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 作品 역시 庶民에게 布教를 爲하여 民衆이 쉽게 이해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漢讚보다 吏讀體로 된 歌辭形式으로 表現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佛教經典을 바탕으로 하여 佛教思想을 나타낸 諸作品은 本來文學에 佛教思想이 결부된 것으로 認定하여 <佛教的文學>이 될지언정 <佛教文學>이 될 수 없다고 하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宗教的 動機에서 創作되어지고 一般讀者에게까지 感動을 주는 것이라면 <佛教文學>이 一般文學으로서 論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上代의 佛教經典을 바탕

으로 한 念佛頌은 羅代의 諸僧侶들에 依해서 口碑傳承되었고 이것이 後期佛敎歌辭의 生成淵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文獻的 諸事實을 바탕으로 살핀 수 있다면 上代民間信仰에 까지 遡及하여 文學的인 立場에서 考察될 때 우리 나라 詩歌文學의 起源과 位置는 文學史에서 再評價될 줄 믿는다.